

나주환 “이적생 성공 신화 쓴다” 홍상삼



나주환

SK와 작별 후 KIA에 새 등기…안치홍 떠난 내야 전천후 수비수
2·3루 오가며 공백 메우기…주전 보다 든든한 배경 역할 자임
“팀 긴박한 싸움할 때 역할 하는 것이 베테랑…팀 원하는 선수 될 것”

새로운 기회를 얻은 두 이적생이 KIA 타이거즈의 ‘복덩이’를 꿈꾼다.

KIA는 지난겨울 내야수 나주환과 투수 홍상삼을 영입했다. KIA에는 부족한 전력을 메우는 영입이고 야구 인생 갈림길에 섰던 두 선수에게는 기회의 이적이다.

내야 백업은 KIA의 오랜 고민이다. 2루수 안치홍까지 FA시장에서 놓치면서 내야의 경험에 필요했다.

‘젊은 마운드’가 지난 시즌 KIA의 희망이 됐지만 마운드에도 속제는 있었다. 확실한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하지 못했고 구위로 압박할 투수도 부족했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나주환과 홍상삼은 각각 SK, 두산과 작별을 했다. 방출 선수 명단에 이

름이 오르면서 새 시즌을 기약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KIA에 새 등지를 틀었다.

두 사람은 “시즌 준비는 잘 되고 있다. 즐겁게 잘하고 있다”며 새 팀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다.

따뜻하게 맞아 준 새로운 동료들과 밝은 팀 분위기 덕에 두 사람은 일찍 적응을 끝냈다. 무엇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두 사람에게 큰 힘이 됐다.

‘전천후 수비수’가 나주환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선발 후보’가 홍상삼에게 붙는 타이틀이다.

“오늘부터 유격수 연습도 시작했다”면서 웃은 나주환은 “지금 포지션이 따로 없다. 3루에서 하고 싶으면 3루에서, 2루에서 하고 싶으면

2루에서 하고 있다. 그런 (전천후) 수비수 역할로 오게 됐고,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프로선수라면 주전 자리를 꿰차고 싶은 욕심이 크지만 70~80경기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하면서 몸을 만들고, 팀이 원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팀의 가을잔치를 위한 마지막 카드, 후배들의 길이 되는 게 그의 목표다.

나주환은 “예전에는 전천후 포지션이 자리도 없고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고참으로 팀에 역할을 하면 앞으로 이런 고참 선수도 나올 것이고, 어린 선수도 다른 포지션에 경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팀이 원하는 방향이 풀타임으로 잘해주라는 게 아니

라 어린 선수들이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역할을 해주라는 것이다. 시즌 마지막 5강 싸움할 때는 반계임, 한 게임 차다. 내가 다섯 게임 정도만 (승리에) 역할을 한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상삼은 앞선 캠프를 통해 ‘자신감’을 채우고 선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홍상삼은 “캠프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돼서 지금까지 좋은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며 “공을 던질 때 두려움이 있었는데 던지면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언급했다.

‘좋은 구위의 투수’와 ‘제구가 좋지 않은 투수’가 홍상삼에게는 동시에 붙는 수식어였다. 서재응 코치는 홍상삼의 약점 대신 장점을 강조하면서 능력을 끌어내고 있다.

홍상삼은 “확실히 코치님이 말씀하신 게 와 닿아서 편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제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힘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내 공을 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군에 최대한 오래 있는 게 제일 큰 목표, 각오다. 여기 와서 도움이 되어 1년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몇 승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1군에 같이 있고, 시합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인 것 같다”며 “잘하는 사람이 선발로 나가는 거니까 선의의 경쟁하면서 나중에 보직 맡겨주시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홍상삼

두산서 이적 KIA 선발 경쟁 합류…스프링캠프 거치며 자신감 상승
좋은 구위·제구 약점 상반된 평가…서재응 코치 장점 끌어내기 중점
“공 던지는 두려움 털고 내 공 던져…1군서 활약하는게 목표”

KIA “명예회복 향해 전진”

2020 팬북 발간… 선수들 화보·시즌 전망 등 볼거리 풍성

KIA타이거즈가 ‘우승 반지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컨셉으로 한 2020시즌 팬북 2만부를 발간했다.

팬북 표지는 웅맹한 호랑이가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으로 장식해 명예회복을 향해 전진하는 KIA타이거즈 선수단의 의지를 드러냈다.

선수들의 역동적인 플레이를 포착한 화보와 함께 다양한 테마의 인터뷰가 풍부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지난 시즌 결산과 올 시즌 전망이 담겼고, 구단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으로 첫발을 내딛는 윌리엄스 감독의 출사표가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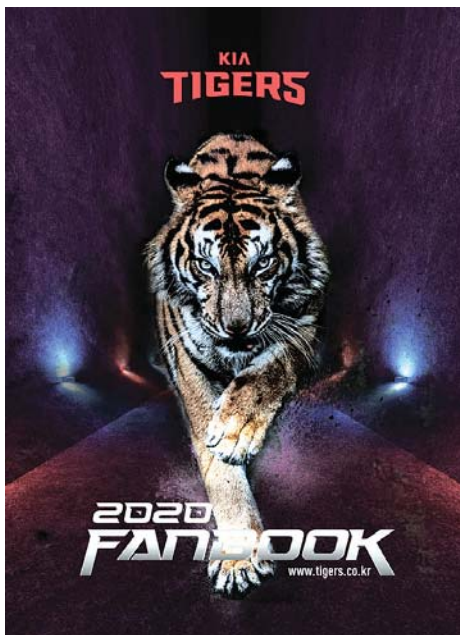
메이저리그 출신 서재응 투수코치와 최희섭 타격코치의 포부도 담겨있다.

지난 시즌 KIA의 희망으로 떠오른 문경찬, 박찬호, 전상현의 인터뷰를 비롯해 이적 후 확실하게 이름을 알린 이창진과 유민상의 이야기가 실렸다. 올 시즌 ‘호랑이 군단’의 새 일원이 된 홍상삼의 인터뷰도 실렸다.

올 시즌 KIA의 성적을 책임질 ‘외국인 3인방’ 애런 브룩스, 드류 가논, 프레스턴 터커도 팬북을 통해 팬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팬이 보낸 응원 메시지에 대해 선수들이 답장을 보내는 코너, 팬이 직접 꾸민 ‘내 선수 프로필’ 등 팬과 함께 하는 콘텐츠도 알차다.

함평 챔피언스 필드 2구장 개장 소식, 챔피언



스 필드 푸드 지도, KIA타이거즈 응원단 소개 등도 만날 수 있다.

팬북 가격은 1만원이며 케이엔코리아 타이거즈 온라인숍(www.tigersshop.kr)에서 판매된다. 챔피언스 필드 내 타이거즈숍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케이엔코리아(02-2265-0794)로 하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최다 주연은 ‘이동국’

38년간 역대 결승골 5778회…이, 통산 224골 중 63골
여범규 전 광주 FC 감독, 전체 11골 중 8골 결승골

축구는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골’의 의미는 크다.

동점 상황에서 나온 골은 더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 극적인 승부로 팀에 귀한 승점 3점을 안겨주는 K리그의 ‘결승골’을 알아본다.

프로축구 원년인 1983년부터 지난 2019시즌까지 K리그에서는 총 5778번의 결승골이 터졌다.

전후반 90분을 15분 단위로 살펴보면 후반 30분부터 45분까지의 시간대에 가장 많은 1190골(20.6%)이 나왔다.

후반 45분이 지난 추가시간에 완성된 ‘극장골’도 253골(4.4%)에 이른다.

K리그 득점 1위 이동국은 결승골 부문에서도 1위다. 이동국이 기록한 224골 중 63골은 팀에 승리를 선물한 결승골이었다.

가장 화제가 된 이동국의 결승골은 2015년 7월 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나왔다.

당시 리그 1위를 달리던 전북은 최하위 대전과의 빽속 혈투에서 3·3으로 맞선 채 후반 추가시간을 맞았다. 그리고 이동국은 후반 49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대전 골대를 가르면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데얀(56골), 김신욱(52골), 정조국·우성용(이상 40골)이 이동국의 뒤를 잇는다.

전체 골 중 결승골 비율이 가장 높은 선수는 여범규 전 광주FC 감독이다.

그는 1986년부터 7시즌 간 부산(당시 대우) 미드필더로 뛰면서 141경기에 나와 11골을 기록했다. 이 중 8골이 팀의 승리를 부른 결승골이었다. 결승골 비율은 72.7%.

현역 선수 중에서는 서보민(성남)의 결승골 비율이 가장 높다. 서보민은 통산 19득점 중 12점(63.2%)을 결승골로 장식했다.

자책골이 결승골이 된 경우도 4차례나 있었다.

수비수 못 맞고 굴절된 공이 결승골이 된 사례가 9번이 있었고, 특히 자책골로 기록된 결승골 상황도 4차례에 이른다.

지난해 29라운드 전북전에서 울산 윤영선이 후반 4분에 기록한 자책골이 가장 최근에 나온 자책골 결승골이다.

결승골의 특급 도우미로는 수원 삼성의 염기훈이 꼽힌다.

K리그 통산 도움 1위(106개)인 염기훈은 37개의 결승골도 합작했다. 신태웅(27개)과 물리나(26개)가 뒤를 잇는다. ‘결승골 1위’ 이동국도 22개의 결승골 도움도 기록했다.

직접 프리킥으로 가장 많은 결승골을 터트린 주인공은 이천수와 에닝으로 7차례 결정적인 순간 골대를 갈랐다. 염기훈, 고종수, 레오나르도가 4골로 뒤를 잇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추 일당은 582만원

〈현진〉〈신수〉

MLB 30개 구단 연봉 선지급안 발표
두달 1억7천만달러…개막후 정상회복

미국의 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는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추신수(38·텍사스 레인저스)는 3월 27일부터 5월 25일까지 일당 개념으로 4775달러(약 582만원)를 받는다.

이는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메이저리그 선수노조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리그 개막 연기와 리그 축소 가능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합의해 공표한 연봉 선지급안에 따른 것이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은 40인 로스터, 부상자 명단에 있는 선수들과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선지급금 개념으로 두 달 간 1억7000만달러를 나눠 주기로 했다.

선수들은 정규리그가 개막하면 이후엔 자신의 연봉에 비례한 돈을 받는다.

AP통신이 1일 소개한 선금급 분배 세부 내용을 보면, MLB 베테랑 선수들은 60일간 28만6500달러를 수령한다. 이를 일당으로 나누면 4775달러다.

류현진의 올해 연봉은 2000만달러, 추신수의 연봉은 2100만달러다. 예년과 같은 시즌 전체 등록 일수(186일)로 나눈다면 류현진의 일당은 10만7500달러, 추신수의 일당은 11만2900달러다.

선금급에 따른 일당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최지민(29·탬파베이 레이스)도 류현진, 추신수와 같은 일당을 받는다.

/연합뉴스